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2. 4. 1.(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송도기반과
담당	과장 조항만, 송도기반1팀장 박종훈, 담당 김창현 (032-453-7565)

“쉽없는 주민대화 통해 이뤄낸 송도 8공구 자동집하시설 마침내 준공”

인천경제청, 착공 3년8개월만에 준공식 개최… “민관협치 새로운 모델 제시” 주목
 주민 민원 등 어려움 뚫고 현 위치 지하화·특화공원 조성 조건 설치 이끌어내
 박남춘 시장 “적극 대화·문제해결 의지가 갈등 해결…민관협치 본보기 삼을 터”

- 주민들과의 쉽 없는 대화와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 등이 한데 모여져 착공 3년8개월 만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마침내 준공됐다.
- 이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8공구 자동집하시설에서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 지난 2018년 7월 동시에 착공된 6공구(송도동 396-4)와 8공구(송도동 310-2)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6공구의 경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 2020년 5월 완공됐다.
- 하지만 8공구 자동집하시설 공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심한 악취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송도 9공구 내 공원 및 사업부지 내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이

전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해당 부지 소유 기관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 인천경제청은 이에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와 타 시도 집하시설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쉽없는 대화에 나선 결과 현 위치에서의 지하화와 특화공원 조성을 조건으로 지난 2019년 6월 마침내 주민투표 끝에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이끌어냈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대화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마침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건립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이 시설물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해 민관협치의 본보기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투입구를 통해 지하에 설치된 수송관로를 이용, 자동으로 집하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502억원을 들여 송도 6·8공구에 집하시설 2곳과 길이 12.7km의 수송관로를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를 마무리,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이번에 공사가 먼저 완료된 6공구와 함께 동시에 준공식을 열었다. 현재 8공구 자동집하시설 상부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됐으며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하루 25.5t의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을 갖추고 가연성 생활폐기물만 수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문전수거한다. 본격 가동은 시설물 관리자인 연수구청과의 인계·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 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00)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